

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‘개방형 정책(거버넌스)’으로 대응한다!

- 특허청, 산·학·연·관이 참여하는 ‘표준특허 연구회’ 출범(6.10) -
- 각 분야 전문가 모여 표준특허 관련 정책·이슈 공유 및 논의 -

특허청은 6. 10.(월)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(서울 강남구)에서 표준특허* 유관 산·학·연·관이 함께 참여하는 ‘표준특허 연구회’를 출범한다고 밝혔다.

*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

최근 정보문화기술(ICT) 융·복합화로 커넥티드카, 지능형가전(스마트가전)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. 또한, 지난해 4월, 유럽집행위원회(EC)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(글로벌)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.

이에 특허청은 ‘표준특허 연구회’를 출범하여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·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·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‘개방형 정책(거버넌스)’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.

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, 중소·중견기업, 대학·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.

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작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(EC)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.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.

한편,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민·관 연구개발(R&D) 기획을 지원하고,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산·학·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

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본 연구회는 국제적(글로벌)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”며 “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,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식 현수막 및 개요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	책임자	과 장	신원혜	(042-481-8254)
		담당자	사무관	김호영	(042-481-3586)





☐ 표준특허 연구회 개요

- (목적) 국내·외 표준특허 정책·법령 등에 대한 논의 및 개선 사항 도출, 업계 주요 이슈 공유, 전문가 간 상호 교류 등
- (운영) 반기별 1회 개최

☐ 연구회 출범식 개요

- (일시) '24.6.10.(월), 16:00 ~ 18:00
- (장소)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(5층)
- (참석자)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, 산·학·연 및 법조계 15명 내외, 특허법원 기술심리관,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 등

☐ 세부 일정(안)

시간	주요 내용	비고
16:00~16:10 (10')	참석자 소개	김호영 事
16:10~16:13 (03')	인사 말씀	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
16:13~16:15 (02')	연구회 소개	김호영 事
16:15~16:40 (25')	유럽의 표준특허 규정안	김호영 事
16:40~17:10 (30')	표준특허 연구회에의 기대	한상욱 변호사 (감·장 법률사무소)
17:10~17:30 (20')	표준특허 생태계 강화 방안	김호영 事
17:30~18:00 (20')	자유 토론 및 회원 간 교류	-